

## 어사용에 나타난 탄식의 양상과 의미

이정아\*

<차례>

1. 홀로 탄식하며 노래하기
2. 어사용의 사실 실현 양상
3. 어사용에 나타난 탄식의 양상
  - 1) 대사회적 비판의식과 운명론적 자기인식
  - 2) 육체적 고통과 고독, 벗어날 길 없는 생의 절곡
  - 3) 웃음으로 털어내는 한스러움
4. 탄식, 그 한스러운 욕망

### <국문초록>

어사용은 하층남성들이 나무를 하러 가는 노동의 현장에서 부른 노래이다. 어사용에는 남성들이 부르던 집단적 노동요가 보여주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자기 인식 대신 고단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하층 남성의 탄식이 담겨 있다. 홀로 탄식하며 부르는 노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어사용에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었던 하층 남성들의 상처 난 욕망이 담겨 있다.

어사용의 사실은 민요 일반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공식구를 중심으로 조합된다. 이들 공식구간의 결합은 창자의 정서적 향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탄식의 목소리는 오히려 단조롭기만 하다. 어사용이 담고 있는 탄식의 내용은 대사회적 비판, 소외감, 고독, 자신이 처한 현실 등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웃음을 통해 현실의 비애감을 덜어 내려는 민중적 미의식으로 승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은 어사용을 향유한 계층의 성격을 말해 주며 개별적인 노동 상황에서 불려지는 사적인 노래이기에 가능하다고 보인다. 탄식의 기저에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된 타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현실인식이 자리한다. 어사용은 냉혹한 현실인식을 기반으로 자기 삶을 살지 못한다는 자의식을 지닌 이들의

\* 이화여대 강사

한스러운 욕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거대한 자본에 고용되어 그 안에 갇혀  
들여져 가며 서식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도 공감으로 다가오는 노래라 할 것이다.

**주제어** 남성민요, 어사용, 탄식, 욕망, 여성민요

## 1. 홀로 탄식하며 노래하기

인간은 말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표출하고 타인과 소통한다. 그 소통을  
통해 나 아닌 타인과 공감하기를 원하고 그 공감의 순간을 통해 지금의  
내가 선 현실의 고통을 치유 받는다. 그러나 내놓고 누군가에게 공감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답답한 속내를 달래기 위해 냇두리처럼 늘어놓  
고나 쏟아내는 것으로 그 마음을 달래기도 한다. 소통을 지향하지만 그  
소통의 대상이 스스로가 될 경우가 있다. 홀로 하는 노래는 그 소통의 대  
상이 타인이 아닌 스스로가 될 때 행해지는 말하기의 한 방식을 잘 보여  
준다. 이야기를 통해 이루지 못한 꿈을 소망처럼 말해 왔다면 홀로 탄식  
하며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비정한 현실 속에 이룰 수 없는 좌절된 꿈  
에 대한 비애와 슬픔을 털어 놓았다. 그 탄식의 노래는 누군가와 소통  
을 위한 목적이거나 오히려 자기 치유를 위한 생존의 말하기라 할  
수 있다. 또한 탄식하고 원망하며 비웃고 비트는 말하기는 벗어날 수 없  
는 생의 굴곡에서 생겨나는 타자들의 항변이기도 하다. 암울한 현실에 대  
해 탄식이라는 정서적 출구를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삶과 노동의 현장에서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그  
대로 투영하여 노래 속 화자를 통해 대신하고 있는 말하기다. 어사용은  
그 어떤 장르보다도 이러한 욕망을 추적해내기 적합한 대상이라 보이는  
데 강력한 가부장적 가족 제도 하에서 시집살이를 살았던 여성들만큼

나 신분적 제약으로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하층 남성들이기 때문이다. 하층 남성 노래 어사용을 통해 드러나는 화자의 탄식에는 태어남 자체의 운명적 비애감과 대사회적 비판의식의 묻어났다. 외로운 산중에서 힘겨운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의 무상함 등 생의 고통 때문에 동요하는 욕망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러한 양상은 시집살이를 통해 발견되는 화자의 탄식<sup>1)</sup>과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 다르다. 탄식하고 원망하며 외로움을 호소하고 웃음으로 탄식을 털어내는 민중적 미의식을 공유하지만 사회적 자아와 인생에 대한 덧없음을 관조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어사용에서 발견되는 운명론적 비애감에는 대사회적 비판의식도 포착된다. 이는 규방가사 속 여성화자가 결혼으로 인해 실추된 자기 위상에 대해 탄식하는 것보다 유사해 보인다.<sup>2)</sup>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에 대해 비판하고 이를 탄식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어사용 속 자아는 탄식 자체를 탄식하는 것으로 자족한다. 자신을 추스르거나 납득할만한 당위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에서 규방가사와 다르며 이런 측면에서 시집살이 노래와 가까이에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어사용이 드러내는 탄식의 양상을 정리하고 그 양상을 통해 노래 속 화자가 무엇을 욕망하고 표출하고자 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홀로 노동하며 부른 노래 속에서 담겨진 탄식의 양상을 정리하면서 이들의 숨겨진 욕망을 읽어내는 것이 주된 논의의 내용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민요대전』 경북편, 경남편에 수록된 어사용 자료 29편<sup>3)</sup>을 대상으로 삼을 것이며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시집

1) 이정아, 「시집살이 노래 구연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과 여성 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박사논문, 2006, 1-184면.

2) 이정아, 「규방가사와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난 여성의 자기인식」, 『한국고전연구』15,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213-239면.

3)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민요해설집, 71, 125, 140, 148, 170, 188, 221, 222, 231, 253,

살이 노래 역시 자료로 활용하겠다.

## 2. 어사용의 사설 실현 양상

산에 나무하러 가거나 풀을 뜯으러 가서 부르는 어사용은 나무꾼들이 부르는 노래로 폐쇄적인 공간에서 가창되었기 때문에 사설이 직설적이며 자탄적이어서 <신세한탄노래>라고도 불려진다. 이 노래는 특히 영남의 지역민요로서의 지역적 특징을 드러내는 자료<sup>4)</sup>이자 조선 후기적 하층민의 삶을 이해하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조동일의 『경북민요』<sup>5)</sup>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어사용은 김현선의 논의를 통해 현지 분포와 사설 유형, 시사적 의의 등 그 중요성이 언급되었고<sup>6)</sup> 이후 권오경의 연구를 통해 본격적인 사설 구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sup>7)</sup> 권오경은 어사용의 유형을 갈가마귀 소리, 봉덕이 노래, 과부노래, 나물노래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그는 어사용이 서사-본사-결사로 이루어진 제의적 노래의 형식을 가졌지만 점차 제의성을 상실하면서 개인의 탄식을 담은 노래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본사 부분에 다양한 자탄류의 노랫말들이 담기는 유동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논지를 전개한바 있다. 이러한 논지를 기반으로 『한국민요대전』 경북편, 경남편에 수록된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각 노래들은 아래와 같은 사설군의 결합에 의

---

277, 406, 483, 494, 495, 548, 553, 585, 634, 687, 701면과 경상남도해설집, 71, 173, 233, 235, 306, 307, 308, 309면에 수록된 29편의 자료.

4) 김영운, 「영남민요 어사용의 음조직 연구」, 『한국민요학』 6집, 1998, 45-131면

5) 조동일, 『경북민요연구』, 형설출판사, 7-90면; 조동일, 『한국민요의 전통과 시가율격』, 지식산업사, 1996, 7-209면.

6) 김현선, 『한국구전문요의 세계』, 집문당, 1996, 6-555면.

7) 권오경, 「어사용의 유형과 사설구조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276면.

해 각각 다른 유형의 노래로 실현되고 있었다.

- A. 갈가마귀 부르는 소리
- B. 이후 소리
- C. 고대광실에서 태어나지 못한 신세 한탄
- D. 육체적 고통과 배고픔 호소
- E. 세월이 무상함 탄식하거나 청춘이 지나감을 탄식
- F. 외로움을 호소
- G. 봉덕이를 부르며 탄식
- H. 죽은 영감을 부르며 탄식
- I. 어머니를 부르며 탄식

가장 대표적인 어사용 유형은 갈가마귀소리와 이후소리, 노동 현장에서의 노동 상황과 고통을 호소하는 유형으로 A+B+C+D, B+A+C+D, B+C+D와 같은 사설의 조합 양상을 보였고 갈가마귀소리 혹은 이후소리와 결합하지만 노동의 상황이 배제된 자탄적 사설(세월의 무상함이나 청춘이 지나감, 외로움을 탄식)이 주된 내용이 되는 A+E, A+E+B, A+F, B+E, B+F 같은 결합 양상을 보였다. 갈가마귀소리나 이후소리 없이 F, G, H, I 가 독립적으로 불리는 자료(봉덕이 혹은 어머니를 부르며 탄식하거나 죽음 영감을 부르며 탄식) 역시 어사용의 대표적인 사설군으로 존재하고 있다.

아래 자료는 전형적인 어사용 유형에 속하는 노래라 할 수 있다.

후후야 후후우야 후후우야  
이 지게나 내 등때기나 우리 둘이 도양(동행)해야  
산천초목을 헤맸구나 후후우야 후후우야  
삼베옷을 걸쳐 입고 산천초목 헤매이면서 후후야 후후우야

이 등 저 등 넘어 땀기면서 조흔 새목(딸감) 귀하구나 후후우야 후후우야  
 어떤 사람 팔자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부귀공명 누리는데  
 이내 팔자 무삼 죄로 지게나 내나 도양해야  
 이 산천을 해매는고 후후우야 후후우야  
 배는 고파 등에 붙고 목은 말라 갈석인데  
 어느 개골 물찾을꼬 후후우야 후후우야  
 가자가자 집을 가자 갈 때는 빈 지젠데  
 올 때는 이 산천에 남글 한짐 징과가고(깊어지고)  
 다리 아파 어이 가며 허리 아파 어이 갈꼬

(1993. 3. 3 /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 김도식, 남, 1909)

B+C+D 사설군이 중심이 되어 결합한 이 노래는 지개를 지고 나무를  
 하러 나서는 화자의 심정이 잘 드러난다. 삼베옷을 걸치고 땀감을 찾아나  
 서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이 고대광실에서 태어  
 나지 못한 신분 탓이라는 탄식과 배고프고 목마른 육체적 고통에 대한 탄  
 식도 이어진다. 이렇게 노동의 현장과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잘 드러나는 자료 가운데는 다른 사설군이 결합되  
 면서 내용상 균열을 보이기도 한다.

에헤에이  
 이에에이  
 의양땅 갈가마구야 이 내소식을 전해 다오  
 히요 날라가는 저 기력야 이 내소식을 전해다오  
 히에 산은 내 산이요 물은 내 물이 아니로다  
 주야장천 흘러가는 물을 내 물이라꼬 할 수 있나  
 후후후야 허허이  
 바람야 강풍야 불지말어라 서풍에 낙엽이 다 떨어진다 허허후야

이요 후야후야 슬프다 우리 낭군님은 점슴 굵고 나무 하러 갔네  
 이요 의복이 남루하니 골목 출업이 번개로데  
 이요 어떤 사람은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이요우 회롱하며는 살건마는  
 이요 이내 팔자는 왜 이르노 죽자하니 청춘이요 살자하니 고생이데  
 이요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마소  
 이요히후 명년삼월 또 닥친데 명년삼월 또 닥친데  
 이요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마소

(1994. 2. 25 / 대구시 동구 평광동 택리 / 송문창, 남, 1933)

위 노래는 B+A+E+D+C+E의 사설군이 결합한 자료로 노래이다. 갈가마구를 불러 소식을 전해달라는 불러들이기로 시작한 노래는 이윽고 펼쳐진 산과 물을 배경으로 선 노랫 속 화자가 바람아 불지 말아달라는 하소연으로 전개된다. 이어 “우리 낭군님은 점슴 굵고 나무 하러 갔네/ 의복이 남루하니 골목 출업이 번개로데/ 어떤 사람은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회롱하며는 살건마는/ 이내 팔자는 왜 이르노 죽자하니 청춘이요 살자하니 고생이데”라며 어사용 전형적 사설군이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화자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라는 점이 인상적이다. 다시 이어지는 사설은 꽃진다 서러워말라며 내년 봄에 다시 핀다는 세월의 무상함과 청춘이 지나감을 서러워하는 인생에게 명년을 기약하는 자탄류의 탄식으로 이어진다. 이 노래는 기본적 어사용 유형에 자탄의 사설군이 결합되어 불러진 경우로 B+A+D+C라는 기본 구성에 E가 중간 중간 삽입되어 B+A+E+D+C+E의 형태로 노래 속에 자연스럽게 습합된 양상을 보인다. 실제 이 노래의 전형적 유형에서는 대부분 남성 화자가 탄식하고 있지만 위의 자료에서는 여성 화자가 탄식하고 있으며 이는 자탄적(E) 사설군이 개입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 보인다.

아래 자료들은 갈가마귀를 부르는 어사용의 전형적인 공식구로 시작하지만 노동의 현장의 고통과 신분에 대한 탄식 대신 세월의 무상함과 외로움과 님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는 탄식 즉 A+E, A+E+B, A+F+B 의 사설군이 결합된 자료들이다.

구야 구야 카마구야  
신에 신평산 아리알 갈가마구야  
니 몸은 젊어지는 마는 우리 인생은 늙어지는데  
세상천지 사람들아 어허허  
우리 인생 한분 가면 다시 젊기 어렵더라  
에헤 후후야 에헤

(1993. 1. 14 / 영천시 금호읍 석섬리 / 김태조, 남, 1920)

에이  
시리 실곡산 가리가리 갈가마구야  
저 건네 저 들간에  
나물 뜯는 저 처녀야  
이 건네 이 들간에  
참나물 꾀디서리  
퍽 쓸어졌데이  
가리 갈갈마구야  
산천초목에 타는 불은  
만 초군이 끄건마는  
이 내 심정 타는 불은  
어느 님이 끄건마는  
이후후후야

(1993. 2. 5 / 경주시 건천읍 용명2리 밀구 / 최정식, 남, 1934)



위 노래들은 노동현장의 고통을 실감나게 토로하는 유형과는 달리 세월의 무상함이나 외로움을 노래하는 자탄류 사설이 갈가마귀소리, 이후와 결합하며 어사용의 또 다른 유형을 형성한 경우라 하겠다. 노동에서의 고통을 탄식하는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사설 대신 그와 유사한 정서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설군을 어사용의 노랫말로 가져와 부른 경우이다. 아예 갈가마귀소리나 이후 소리 없이 불려지는 어사용이 발견되기도 한다.

나무하러 가자 남따꿈 풀 비러 가자 풀따꿈  
저게 오는 새각씨는 신랑 품에 잠을 자고  
원덕치주(먼 곳에서) 물어오니 조대일석(제 앉은 자리) 여기로다  
...중략...  
어떤 사람 팔자 좋아 이리 과모가(밥짓는 여자) 되었노  
어떤 노인 팔자 좋아 내 팔자가 이래 됐노  
하련일생 돌아가니 도리일색 여기로다  
인간 백발 쓸 데 없고 새끼 백발 쓸 데 있네  
하모일색 나이 먹어 모발조차 희건마는  
원강치주 일을하니 조대일색의 달이 떴네

(1993. 2. 24 / 포항시 흥해읍 북송리 북송 / 최화식, 남, 1923)

한편 갈가마귀소리나 이후 소리 없이 불려지는 어사용 가운데 기존의 자탄적 사설이 아닌 특정한 극적 상황을 노래한 사설들도 발견된다.

열 아홉살 먹은 과부가  
스물 아홉살 먹은 딸을 잃고  
딸 찾으러 가느라고 문경새재  
너른 한 질에 두 다리를 쭉 뻗치고  
어드로 갔나

우 봉덕아 어드로 갔노 내 딸아

(1993. 10. 14 / 문경시 농암면 연천1리 새터 / 김영환, 남, 1915)

영감아 영감아 우루 영감아

거운년으 송년에 메띠기 뒷밭에 채여 죽은 영감아

개떡 잡소 개떡 잡소

거운년 송년에 개떡도 한 넙띠기(한조각) 몬 잡숫고 갔는 영감

개떡 잡소 개떡 잡소 개떡 잡소

거운년 송년에 죽은 영감 개떡 잡소

(1993. 2. 24 / 포항시 흥해읍 북송리 북송 / 김선이, 여, 1927)

젊은 어머니가 나이 먹은 딸을 찾아 나선다는 봉덕이 노래와 죽은 영감을 애타게 부르는 위 노래는 사실적인 노동의 현장과도 멀고 기존의 자탄 가류의 탄식과도 다른 특별한 극적 상황에서 부르는 여성 화자의 노래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극한의 극적 상황 속에서 생겨나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제시한 자료들과는 차별된다.

이렇게 어사용 자료는 각 사설군들의 결합 양상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실현되고 있다. 어사용을 어사용이라 변별하는 기준은 물론 음악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 사실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겠지만 그 가운데 사설은 어사용을 변별하는 중요한 자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sup>8)</sup> 특별히 갈가마귀 부르는 소리와 이후소리는 어사용을 변별해내는 주된 공식구이고 이러한 공식구의 삽입 여부가 어사용을 인식하고 변별해내는 중요한

---

8) 여기서 어사용을 변별하는 중요한 자질인 음악적 형식의 문제 역시 다뤄져야 하겠지만 이 문제는 본고가 다룰 수 있는 능력 밖의 문제이므로 논의는 사설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히기로 한다.

자질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식적 표현 없이도 민요 일반의 자탄적 사설과 결합하거나 특정 극적 상황의 노래로 단편화된 유형의 어사용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이는 권오영이 지적한대로 어사용이 확대되어 연행되면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변화의 양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사설 간 조합으로 실현되는 노래들은 노래를 부르는 상황마다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다른 노랫말과 결합하여 변화될 수 있는 가변성을 지니며 이러한 가변성은 어사용이 가지는 장르적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어사용의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장르 실현 양상은 창자가 노래를 부르며 전달하려고 하려는 정서적 메시지 즉 내 서럽고 한스러운 처지와 신세 탄식하기에 결집해 있다. 이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사설군들을 활용해가면서 창자의 창조적 능력에 따라 유동적인 구성의 노랫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아래와 같은 예는 어사용이 보이는 개방적 장르실현의 양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경우이다.

헤에 어허  
 구여 구여 가마귀야  
 반공중우 높이 떠서 황혼 칠백(저승) 가거들랑 님의 소식 전해주소  
 일발삼삼 야밤중에 밤중 새별 돈이 떴고  
 이야 행상 큰 북소래 팔도귀신 춤을 춘다 어야  
 삼월 살구 삼동구리 늦춧대는 사초방에 불 밝히고  
 오월 난초 관운장은 장두칼 품에 품고 원수진 놈 찾아간다  
 육육에 연을 타고 팔도 강산 망을 보네 야  
 치럼 치럼 따은 머리 금초댕기 끝만 물려 동남풍을 흐날리고  
 우리 형제 팔형제는 한서당에 글을 배와 경주야 첫 세월에 과개하기 기다  
 리네

구실구실 늙은 중은 백팔염줄 목에 걸고 탁목을 손에 들고  
 절뚝 짝지(작대기) 둘러 쥐고 이 골목에 딱딱 저 골목에 딱딱 한술주소  
 딱딱 두술 주소 딱딱  
 장하숲에 범 들었다 일자 포수 다 모여서 그 범 한마리 잡아 놓으니  
 잡아 놓으니 구경꾼이요 미고 나니 초롱군이요 들고 나니 상두꾼이야  
 에 질로 질로 가다가 바늘 한개 주셨네  
 주는 바늘 남을 줄까  
 남 줄라니 아깝고 내 할라니 개구구나(아니꼽구나)  
 변소간에 던졌네 낚수 한개 치었구나  
 치은 낚수 남을 주까 남줄라니 아깝고 내 할라니 개구타  
 압록강에 던졌네  
 잉어를 한마리 낚았더니 니팔도매(네발도마) 걸쳐서 장두칼로 도여서  
 내외부부 안저가주 히히낙낙 먹건마는 농부된 이내 팔자 어찌하여  
 풀계개를 아기 삼고 지계목발 등을 삼아 높은 태산 우리나라  
 땀뻘이 물을 삼아 내 신세는 왜 이튼고  
 헤헤이 농부된 내 팔자야  
 이 후후야

(1993. 2. 18 /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솔내동 / 정만희, 남, 1931)

제시한 자료는 기존의 A+B+C+D 구성을 보이는 전형적 사설과는 다른 사설군의 개입이 보인다. 노래가 전달하는 정서적 메시지 역시 나무꾼이 아닌 농사꾼의 시름과 한탄을 담고 있다. 노래를 구성하는 사설 내용을 살펴해보자면 갈가마귀를 부르는 소리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님소식을 전해달라는 바램으로 시작하여 삼월 살구, 오월 난초, 육육에 연, 치림치림 따은 머리 등 달거리 노래의 형식을 빌어 사설을 진행해나가고 있으며 이들 간의 의미망은 유기적이고 인과적 의미를 형성하기 보다는 노래를 이어가기 위한 말 이어가기식 병렬로 반복되고 있다. 이어지는 사설 역시 '호랑이를

잡다, 상두꾼이 되어 길을 가다, 바늘을 줍다, 낚시로 낚은 잉어를 내외부 부가 회회낙락하며 먹다' 등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각의 사설들이 하나의 노래로 엮여져 나가다가 '농부 된 이내 팔자는 풀지계를 아기 삼고 지계목발 삼는다' 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기존 어사용이 보여주는 탄식과 그와 유사한 정서적 메시지가 환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래의 현장에서 유능한 창자가 자신이 보유한 사설의 노래들을 어떻게 자유롭게 구성해나갈 수 있는지 그 장르적 실현 과정에서의 유동성을 잘 보여준다. 이상 어사용이 가지는 장르적 개방성을 통해 어사용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사설 확장의 가능성과 유동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설의 유동성과 확장 가능성을 가지는 어사용은 오히려 탄식의 목소리를 내는 데는 단조로운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사용을 통해 전달되는 탄식의 목소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남성 화자의 목소리로 산으로 나무를 하러가거나 들로 일하러 나온 노동현장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며 육체적 고통을 탄식하는 경우와 노동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힘든 노동을 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나 신세를 탄식하거나 외로움을 탄식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신세 한탄과 외로움의 탄식이 남성 화자가 아닌 여성의 목소리로 대신 되고 있는 유형으로 자탄적 신세 한탄과 특정 극적 상황의 탄식이 이에 포함된다. 어사용 사설의 결합 양상이 창자가 지향하는 정서적 메시지에 따라 유동적으로 다양하게 결합했던 양상과는 대조적으로 재현된 탄식의 목소리는 두 가지 정도로 집약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사용이 특정 노동 현장에서 특정 계급의 남성들을 중심으로 향유된 개별적이고 사적인 노래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어사용은 하층 계급의 남성들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 개별적인 노동의 상황에서 불렀던 사적인 노래라는 점에서 다른 남성 노동요가 담지 못

하는 감정과 의식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있다. 노래를 통해 흘러나오는 푸념어린 탄식에는 그들 삶에 있어 절실하고 절박한 결핍의 요소가 무엇인가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어사용에 나타난 탄식의 양상은 바로 그들의 절실한 생의 문제, 절박한 결핍의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 3. 어사용에 나타난 탄식의 양상

어사용은 노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창자가 지향하는 정서적 향방에 따라 사설이 유동적으로 불려질 수 있지만 어사용이 담고 있는 노랫말의 내용은 주로 고통스러운 노동에 대한 탄식, 외로움의 탄식, 신세에 대한 탄식 정도로 의미상으로 단조로운 양상을 보인다. 동어반복처럼도 보이는 이러한 탄식은 주로 자신이 처한 신분차별에 대한 원망을 담은 대사회적 비판의식을 수반하거나 힘겨운 노동 자체가 주는 육체적 고통에 대한 호소로, 생의 본연의 고독에 대한 절망감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극한의 절망적 상황을 웃음으로 대신 풀어내고자하는 역설적 의지로 구체화되고 있다.

#### 1) 대사회적 비판의식과 운명론적 자기인식

후후우야 후후우야  
에헤 찢가산이 들어간다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부귀영화 하건마는  
우리 머슴놈들 팔자 어찌하여  
삼십이 넘도록 장가 한번 못가보고  
지물예(영화도 없이) 살 것 넘길란가

아이고 내 신세여

(1993. 9. 1 / 고령군 개진면 양진1리 송곡 / 조용찬, 남, 1911)

제시한 노래는 전형적인 어사용의 사설을 담고 있다.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우리 같은 머슴은 삼십 넘도록 장가 한번 못가고 살고 있다는 화자의 탄식 속에는 팔자가 좋은 고대광실의 양반과 대비되는 ‘우리 머슴놈’이라는 구체적인 자기 신분에 대한 인식이 나타난다. 머슴으로 태어난 화자는 삼십 넘어 장가도 못가는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는데 이러한 탄식의 기저에는 출생에서부터 결정된 신분적 한계와 이것을 뛰어넘거나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자리한다.

노래 속 화자가 절망스럽게 탄식하는 것은 출생부터 시작된 신분적 한계이다. 누구는 양반으로 태어나 고대광실에서, 누구는 천민으로 태어나 나무를 하러다니는 신세라는 대비를 통해 시적 자아가 가지고 있는 대사회적 비판의식을 표현하면서 현재의 자신이 처한 상실감과 비애감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바로 어사용이 보여주는 내용상 특징이다.

산아 산아 높은 산아  
 니 아무리 높다 해도  
 날 낳아 주신 우리 부모  
 그 은덕만 못하더라  
 아이고 답답 서러워라  
 내 팔자가 왜 이런고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부귀영화 하건마는  
내 팔자는 왜 이런고  
동산에 돋은 해는  
서산낙일 다 되간데  
나의 할 일 태산같다  
...중략...  
내 팔자는 왜 이런고  
남 날 적에 남도 나고  
내 날 적에 남도 낳건마는  
내 신세는 왜 이런고  
못하겠다 못하겠다  
아무래도 못하겠다  
어이 할꼬 어이 할꼬  
내 할 길을 생각하니  
기슴 답답 못사겠네

(1994. 12. / 군위군 군위읍 오탁리 오실 / 황학철, 남, 1923)

노래는 부모의 은덕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노래의 주된 정서는 비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서글픔이며 그로 인해 터져 나오는 탄식이다. 어떤 사람은 팔자 좋아 고대광실에 태어나 부귀영화를 누리건만 내 팔자는 해가 다지도록 태산 같은 일만 바라보고 있다, 자신의 신세는 왜 이러한가, 남 날 적 나도 나고 내 날 적 남도 낳는데 왜 나만 이러하냐는 부당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함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현재의 내 신세라는 운명적인 한계를 탄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당위가 되고 있다. 이것이 어사용에서 발견되는 비판의식의 한계이기도 하다.

어사용의 비판의식은 적극적인 저항으로 이어지거나 강화되지는 못한다.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지만 주어진 상황과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



아들이는 태도로 이어질 뿐이다. 시집을 보낸 친정부모 때문에 시작된 불행을 원망하는 여성민요 속 화자<sup>9)</sup>와 달리 어사용의 남성화자는 자기 불행의 원인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며 이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규방가사 속 화자의 운명론적 인식과 닮아있다.

시집살이 노래 속 화자는 목을 매거나 집을 나가는 허구의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이 처한 비탄의 상황을 벗어나려는 의식의 적극성을 보인다. 노래 속 화자는 말대꾸를 하기도 하고 머리를 깎기도 하는 행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려 몸부림친다. 반면 어사용은 화자는 탄식하고 호소하는 것 외에 다른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의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사회적 비판의식과 함께 체념과 수용의 운명론적 인식을 수반하고 있다. 비정한 현실 속에 생존해야 하는 자신의 사회적 위상에 대해 냉정한 시선을 버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꿈꾸는 욕망조차 거세해 버리고 있는 것이다.

## 2) 육체적 고통과 고독, 벗어날 길 없는 생의 질곡

이 산천을 헤매는고 후후우야 후후우야  
 배는 고파 등에 붙고 목은 말라 갈석인데  
 어느 개꿀 물찾을꼬 후후우야 후후우야  
 가자가자 집을 가자 갈 때는 빈 지겐데  
 올 때는 이 산천에 남글 한집 정과가고(깊어지고)  
 다리 아파 어이 가며 허리 아파 어이 갈꼬

(1993. 3. 3 /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 김도식, 남, 1909)

9) 줄고, 앞의 논문

위 노래는 이산 저산 넘어 다니며 땀감을 하러 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서술하면서 배는 고파 등에 붙어 있지만 지계를 한가득 채울 때까지 돌아갈 수 없는 처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배는 고파 등에 붙고 목은 말라 갈 석’이라는 표현은 노래 속 화자가 경험하는 극한의 육체적 고통을 그대로 말해 준다. 등에 가득 지고 있는 나무짐은 생의 무게를 대변하는 의미로 다가온다. 노동의 성과를 두고 기쁨에 넘쳐나는 노래를 부르던 들노래와 달리 어사용은 다리 아파 허리 아파 어이 같꼬 극한의 육체적 고통을 탄식하고 있다.

해는 저서 일락서산 다 가고  
우루님은 어데 가고 이 내 밥을 하니 하러  
불쌍하고 가련한 이내 몸이 어데 가서 사 오리까  
바늘같은 이 내 몸이  
넓고 넓은 이 세상에 어디 가서 살 곳 없노  
아이고 답답 못하겠다

(1993. 7. 23 / 구미시 지산2동 어낙 / 백남진, 남, 1924)

해는 지고 사면은 어두워지고 있는데 우리 님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화자는 탄식한다. 넓고 넓은 세상에 비해 미미하기 짝 없는 바늘 같은 자신의 존재가 어디로 가서 깃들일 수 있는가를 탄식하는 이 노래에서 인간 본연의 실존적 소외의식까지도 엿볼 수 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도 돌아갈 곳이 없는, 나를 반겨 맞아 줄 누군가가 없는 외로운 신세임을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어사용을 통해 드러나는 육체적 고통은 깃들일 곳조차 없이 외로운 자기 처지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지면서 소외의식을 형성한다.

누구하나 자신을 반겨 맞아주지 않는다는 소외의식은 시집살이 노래에

서도 발견된다. 시집살이 노래 속 화자는 하루 종일 띄약별 아래 받을 매고 집을 들어선다. 그러나 누구하나 고된 일을 하고 왔다고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어야 할 점심도 주지 않는다. 이러한 절박한 자신의 처지를 시집살이 노래에서는 대부분 시집식구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어사용의 화자는 춥고 배고픈 상황, 내 몸 하나 깃들일 곳 없는 이유를 비루하게 태어난 신분 탓이라고 말한다. 탄식의 기저에 이미 자신이 처한 타자적 상황에 대한 뚜렷한 현실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의 성과를 만족스러워 하거나 기뻐할 수 없을 만큼 주어진 삶은 냉혹하다.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신분적 한계는 철저하게 나를 소외시킨다. 눈앞에 펼쳐진 노동의 현장, 그 자연 앞에서 무력하고 왜소한 자신만이 상대적으로 강조될 뿐이다. 그래서 어사용 화자는 ‘아이고 답답 못하겠다’라며 삶의 고단함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부귀영화로 살건마는  
 니 팔자나 내 신세사나 가엾이 되었구나  
 자취없이 어서 가자  
 이려이려 이 새야 어서 가자 이  
 저 건너 청김산 바우 밑에 폭포에 물 떨어찌는 소리아  
 울 어머니 먹던 밥에 술(순가락) 걸어 놓고  
 두 손뼉 마지치고 날 부르는 소리  
 귀에 쟁쟁 눈에 삼삼 하단마는  
 두 손목 부루 잡고 복원천리 쫓아가니  
 울 엄마는 간 곳없고 시소선이(꿈이) 날 속였네

엄마 엄마 울 엄마야

울 엄마야 내 신세 이리 될 줄은  
어는 기 누가 알았는가  
어느 기 누가 알았더니 이  
남 날 적에 나도 나고 내 날 적에 남도 났고  
울 엄마가 나를 나여  
진자래에 엄마 놓고 마린 자래 나를 놓혀  
고이 고이 길려서러  
부중생남 만년 잠을 보려했더니  
새꼬리 뺨을 맞는 것이 만중록이란 말인가  
엄마 엄마 울 엄마요

(1993. 3. 17 / 울진군 평해읍 삼달1리 달변 / 황천이, 남, 1912)

위 노래에서 발견되는 엄마를 애타게 찾는 화자 모습은 여성 민요 흥글 소리 화자와 유사해 보인다. 화자의 애타는 그리움은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 시작되고 급기야 두 손뼉 마주치며 자신을 부르는 어머니의 모습을 환청으로 듣기까지 한다. 자신을 진자리 마른자리 고이 길렀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고통스런 현실 속의 나와 대비를 이루며 지금의 고통을 더욱 가혹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엄매엄매 우리엄매 우리엄매 날킬때는/금옥같이 키웠건마는 귀택이가 천  
택이되고

요내내가 요케될줄 어느가 알었당가/하늘아니알고 땅이니알았당가

엄매엄매 우리엄매 나는서러 어찌살가/엄매엄매 우리엄매

(구비대계 6-1, 726-727면)

위 노래는 금옥같이 큰 자신이 천택이가 된 현실을 탄식하며 왜 이런 곳에 시집을 보냈으며 그럴려면 왜 낳았느냐는 원망어린 탄식을 하는 흥

글소리의 일부다. 현재의 고통은 어머니의 품에서 귀하게 자랐던 시절과 대비를 이루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내고 이 그리움은 현재 자신이 처한 극심한 불행의 상황에 대한 탄식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어사용과 흥글소리는 현재 화자가 직면한 불행의 상황을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떠올리며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그러나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발견된다. 어사용의 화자가 산속이라는 소외와 단절된 공간과 대립된 자신을 대비하여 표현해내고 있는 반면 흥글소리의 화자는 ‘머슬힐라 나들나서 가문거문 씻는 감은 감은마디 타지에 두고 청룡동네 날심귀서 날고상을 시키능가’라고 하면서 낮선 타지, 시집이라는 세계에 유입되면서 고통을 받는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고 있다. 남성 화자의 탄식이 자연의 공간이자 노동의 공간인 산과 대치한 자아의 소외감과 고독을 말하고 있다면 여성 화자는 귀덕이가 천덕으로 전락하게 된 상대적 박탈감과 공간적 상실감을 수반한 소외감과 고독을 토로하고 있다.

두 노래 모두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애타게 부르고 있지만 어사용 속 화자가 홀로 직면한 자연환경 속에서 그리움을 노래한다면 흥글소리는 낮선 타지에서 고립된 처지와 단절감을 호소하며 어머니를 부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생에 대한 화자 인식의 차이를 드러낸다.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고 홀로 산중에 서서 그 고독의 끝자락에서 부르는 어머니에 대한 외침은 시집이라는 타지에서 원망과 하소연으로 부르는 어머니에 대한 외침과는 다르다. 어머니로 환기되는 어사용의 고독감은 거대한 세계의 횡포에서 벗어날 길 없는 슬픈 운명을 예감하고 절감하는 체념과 한스러움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다.

### 3) 웃음으로 털어내는 한스러움

권오경은 경상도 <어사용>과 <밭매는 소리>를 비교하면서 두 가지 모두 자탄적 사설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전자가 서정성이 강한 반면 후자가 서사성이 강하다는 차이점을 언급하였다.<sup>10)</sup> 밭을 매는 일은 오랜 시간 일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일을 잊고 신세를 한탄하면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여성들 노래에서는 자신의 처지와 주변 생활환경을 독백조의 서사물로 읊조리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밭매는 소리>를 불같이 더운 날 어머니 부고형, 출가형, 울엄마형, 시집살이형으로 구분하면서 <밭매기노래>가 서사중심의 적극적 세계인식을 보이는 반면 <어사용>은 모순된 세계를 인식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자탄만 강조된 강한 서정의 세계에 함몰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어사용에서 남성적 자아가 보이는 타자적 존재로서의 절망감은 자탄적 서정으로만 함몰되는 것 같지는 않다.

에헤헤 / 가마구야 가마구야 지리산 가리 갈가마구야 하이하  
영감을 논물 뵈러 보냈더니/산골전지 열두 때기를 붙여가주고  
논물보러 보냈더니/항글레 뒷다리에 채이 죽은 후후 영감아  
말죽이따 말죽이따 언지는 말죽이따 하이하/그 영감 별세하고 둘째 남편  
얻었더니

오늘월 술뱅이 그늘에 후후 얼얼죽은 후후 영감아 아하  
언제는 말죽이때이 언지는 말죽이따/그 남편 별세하고 시째 남편 얻었더니  
오늘월배추잎에 싸야 밭혀 죽은 후후 영감아/한심하고 가이 없다 후후 영  
감아

흰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살자했더니/왜 죽었노

(1994. 4. 21/ 의성군 신평면 중률 2리/ 김운환, 남, 1919)

10) 권오경, 「어사용의 유형과 사설구조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276면

위 노래의 화자는 흉년에 굶어 죽은 남편을 메뚜기 뒷다리에 채여 죽은 영감, 오뉴월 솔뱅이 그늘에 얼어 죽은 영감, 오뉴월 배추임에 밟혀 죽은 영감이라면 비극적 상황을 희화화하여 노래하고 있다. 힘없이 죽고 만 남편을 희화해내고 있는 태도는 시집살이 노래나 시집살이 체험담에서 발견되는 타자적 체험이 만들어내는 웃음의 수사적 특징과 유사해 보인다. 눈물지를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을 메뚜기 뒷다리에 채여 죽고 오뉴월 솔뱅이 그늘에 얼어 죽고 오뉴월 배추잎에 밟혀 죽었다는 해학적인 표현으로 희화화하고 있는 화자의 말하기를 통해 비극적 현실을 애써 웃어 넘겨야 했던 민중의 미의식과 태도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집이 시어머니 /염체두 좋아/저잘난걸 낳구서/날데려왔나  
 데려나와결랑 볍지나 말지/요리볶듯 조리볶듯/ 콩볶듯 허네  
 (구비대계』 4-6, 727면)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염치도 없이 변변치 않은 남편을 두고 자길 데려왔다면 비아냥거리고 있다. 변변치 못한 아들을 두었으면 힘들게 볍지나 말지 콩 볍듯 볍아댄다며 자신의 현재적 고통을 희화화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콩 볍듯 볍아대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현재의 나를 힘들게 한다는 메시지를 분노나 서러움, 원망이나 하소연과 같은 방법이 아닌 우스꽝스럽게 비아냥거리며 전달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웃기 위한 웃음의 장치 즉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웃어넘겨야 할 현실을 인정하는 태도가 만들어낸 해학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바로 이 웃으면서 속내 깊이 감춘 슬픔을 표현하는 이러한 방식의 말하기는 웃기위한 웃음의 장치,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웃어넘겨야 할 현

11) 김대행, 『웃음으로 눈물 닦기』, 서울대 출판부, 2005, 1-110면.

실을 인정하는 태도가 만들어낸 타자적 수사 방식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다. 암울한 현실의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웃음을 선택하게 되는 타자들은 자신이 타자라는 점, 자신이 욕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비애를 웃음으로 덮아 내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비정한 현실을 살만한 현실, 견딜만한 일상으로 의미화하고 있는 것이다.

#### 4. 탄식, 그 한스러운 욕망

어사용이 보이는 탄식의 양상은 시집살이 노래와 비교하여 설명할 때 더욱 선명해진다. 대부분의 어사용은 일인칭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이러한 말하기를 재현하는 데 반하여 시집살이 노래는 단성과 다성의 화자를 고루 활용해가면서 다양하게 재현해 나가고 있다. 시집살이 노래를 통해 빈번하게 발견되는 감정적 자아와 인지적 자아 간의 충돌로 인한 균열이 라든가 연행현장에서 발생하는 텍스트 균열 현상 등은 어사용에서는 자주 발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사용에도 체제 안에 안주하여 자기 역할을 다하는 자아와 그 체제 밖으로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하는 또 다른 자아의 갈등 양상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한 갈등은 결국 탄식이라는 말하기를 통해 표출되며 탄식은 결국 내가 속한 지금 여기를 인식하는 명확한 현실인식이 기반이 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운명, 실현 불가능한 꿈과 이상, 지금 충족되기 어려운 욕망에 대한 자아의 한스러움을 풀어내는 말하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시집살이 노래는 길쌈이나 밭매기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또래 공동체



를 통해 공유되고 공론화될 수 있는 말하기의 통로로 활용되었던 반면 어사용은 혼자 나무를 하러 가는 노동 상황을 고려하건대 그 향유와 전승 방식이 개인적이고 개별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그 어떤 노래보다 사적으로 불려졌을 것이다. 이러한 사적 노래에는 신분적 제약을 안고 살아야 하는 하층 남성들의 우울한 현실과 펼쳐 꺼내 보일 수 없는 한스러운 욕망이 담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어사용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한스러운 탄식은 출생에서부터 시작되는 신분의 제약이고 고된 노동과 배고픔과 같은 생존 현장에서의 고통이며, 고단한 삶만큼이나 절박하게 다가오는 고독, 외로움, 이성에 대한 그리움과 같은 문제이다. 이러한 절박한 탄식은 어사용의 전형적인 관용구를 통해 시름을 쏟아내는 양상으로 재현되기도 하지만 웃음이라는 포장을 통해 역설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남성 자탄의 노래 어사용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규범이 만들어놓은 신분의 제약으로 인해 주어진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다. 그와 더불어 육체적 생리적 고통과 이것을 공유할 대상이 없다는 절박한 외로움이다. 이러한 생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도저히 벗어날 길 없다는 현실인식이 다른 남성 민요와 차별되는 어사용만의 특징이다. 일반 서정 장르가 세계를 향한 자아의 동일화를 꿈꾸지만 어사용은 동일화가 도저히 불가능한 세계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이룰 수 없는 꿈, 바랄 수 없는 욕망들을 탄식하고 있다. 또한 그 한스러운 탄식들은 인간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욕망이기에 더욱 절절하다.<sup>12)</sup>

12) 어사용의 탄식은 시집을 펼쳐 나오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허구적 상상을 통해 직면한 현실을 잠시 망각하고자 했던 여성 민요의 탄식과 차별된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자탄의 노래 그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냉혹한 자기 인식을 기반으로 한 노래이며 이러한 현실인식을 통해 쏟아 나오는 탄식이라는 점에서 더욱 처연하다.

내가 사는 세상에서 선택받지 못한 자로 태어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허드렛일이나 해가면서 살아야 하는 고달픈 인생에서 왜 나는 주인공일 수 없을까, 선택받은 자로 태어나 육체적인 고통 없는 유복하고 안일한 삶을 왜 나는 살지 못하는 것인가, 이러한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나의 반쪽은 왜 없는 것인가라는 원초적인 욕망의 결핍으로부터 어사용의 탄식은 시작된다. 이 탄식 속에는 주체로 살고 싶다는 욕망, 부요한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 누군가로부터 충분히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는 소박한 욕망이 숨겨져 있다.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욕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홀로 부르며 탄식하는 노래 속에 담긴 자기 인식은 비애스럽다. 어찌할 수 없는 운명 앞에 내던져진 자아가 생을 향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탄식뿐이라고 탄식하기에 더욱 절망스럽다.

늦은 저녁 술잔을 기울이며 벗어나기 어려운 생의 굴레를 탄식하는 오늘날 직장인들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생의 비극은 어사용의 그것과 다르지 않으리라. 조국의 근대화와 함께 시작된 이 땅의 직장인들은 자본이라는 봉건제에 예속되어 살아야 했고 회사 이윤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며 과거 신분제만큼이나 강력한 상하관계에 귀속되어 살고 있다.

최근 블로그에 심심찮게 올려진 일본 대중가요 <샐러리맨 노래><sup>13)</sup>는 그런 의미에서 예사롭지 않다. 직장 상사로부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부

---

13) 샐러리맨이란 일본 대중가요 노랫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하루 종일 뻥세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냥 자는 것뿐 이런 일상에 질렸지만 오늘도 내일도 그저 되풀이될 뿐 전철 출입문안에서 뛰어들면 오늘도 만원 전철 일하고 잔업하고 언제나 가는 편의점가고 별 대단한 문제같은 건 없이 바쁘기만 한 나날들 너무나 평범해서 웬지 울고 싶어 젖어 어렸을 적 내 꿈은 슈퍼 히어로가 되어 악당을 쳐부수는 거 였어 열심히 힘하고 목욕하고 그냥 자는 것뿐...중략...회사에서 실수를 했어 갈구는 상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벌떡 일어났더니만 꿈이었어...중략...뻥세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저 자는 것뿐 이런 일사에 질렸지만 오늘도 내일도 또 살아가지”

르면 기분이 나아진다는 이 노래를 우리말이 아닌 일본어로 부르는 것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이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심정을 대신 털어 놓는 이 땅의 많은 셀러리맨들의 심정은 어사용을 부르며 탄식하던 남성들의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신분제도 하에서 움 짝달짝 할 수 없는 월급쟁이로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슬픈 운명을 대증가 요 한 자락으로 위로하는 그들이 존재하는 한 한스러운 욕망을 탄식하는 노래 어사용은 또 다른 양상으로 이어질지 모를 일이다.

### 참고문헌

- 강등학, 『정선아라리의 연구, 집문당』, 1993, 5-296면.
- 강등학, 「노래의 말하기 기능과 민요전승의 방향모색」, 『한국음악사학보』 29, 2002, 31-53면.
- 강진옥, 「서사민요에 나타나는 여성인물의 현실 대응양상과 그 의미: 시집살이 애 정 갈등 노래류의 ‘여성적 말하기’방식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9, 한국구비문학학회, 1999, 97-130면.
- 강진옥 외,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1999, 514-521면.
- 강진옥, 「여성 민요 화자의 존재양상과 창자집단의 향유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 연구』4, 2002, 5-32면.
- 권오경, 「어사용의 유형과 사설구조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276면.
- 김기곤, 『욕망의 인간학』, 세종출판사, 1997, 1-223면.
- 김대행, 『웃음으로 눈물 닦기』, 서울대 출판부, 2005, 1-110면
- 김영운, 「영남민요 어사용의 음조직 연구」, 『한국민요학』 6집, 1998, 45-131면
- 김혜정, 『여성민요의 음악적 존재양상과 전승방식』, 민속원, 2005, 5-415면
- 김현선, 『한국구전문요의 세계』, 집문당, 1996, 6-555면.
- 나승만, 「전남지역의 들노래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1-169면.
- 백순철, 「내방가사의 작품 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155면.

- 서영숙, 『시집살이 노래 연구』, 박이정, 1996, 3-83면.
- 서영숙, 『우리 민요의 세계』, 역락, 2002, 1-512면.
- 서영숙, 「가족의 변경에 서서 부르는 노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83-117면.
- 이영식, 「말 엮어내기 식 표현기법과 그 활용 양상」, 『한국민요학』5, 한국민요학회, 1997, 37-58면.
- 이영식, 「경상북도 서사민요의 음악적 연구」, 『한국민요학』11, 한국민요학회, 2002, 137-171면.
- 이정아, 「시집살이 노래에 관한 일고」, 『한국고전연구』11,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265-291면.
- 이정아, 「시집살이 노래 구연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과 여성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박사논문, 2006, 1-184면.
- 이정아, 「시집살이 말하기에 나타난 균열된 여성의식: 시집살이 체험담과 시집살이 노래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 23집 1호, 한국여성연구원, 2006.6, 189-219면.
- 이정아, 「규방가사와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난 여성의 자기인식」, 『한국고전연구』 15,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213-239면.
- 신경숙, 「규방가사 그 탄식의 시편을 읽는 방법」, 『국제어문』 25, 국제어문학회, 2002, 1-24면.
- 이훈구, 『정서심리학』, 범문사, 2003, 3-345면.
- 조동일, 『경북민요연구』, 형설출판사, 7-90면.
- 조동일, 『한국민요의 전통과 시가율격』, 지식산업사, 1996, 7-209면.
- 천혜숙, 「생애경험 말하기와 여성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 월인, 2004.
- 천혜숙, 「농촌여성생애담의 문학적담론적 특성」, 『한국고전여성문학』, 월인, 2007, 283-324면.
- 한국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 「경북편」, 3-805면.
- 한국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 「경남편」, 3-418면.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1-1~9-3(전82)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 ABSTRACT

## Aspect and its Significance in Sighing Alone for Eosayong

Lee, Jung-Ah

Eosayong is a song that was sung on the labor field to which lower-class men go for gathering firewood. Eosayong contains a sigh of lower-class men who need to make a tired life, instead of affirmative and optimistic self-recognition shown by the collective work song, which had been sung by men. Eosayong, which indicates the typical looks in a song of being sung while sighing alone, contains a scarred desire in the lower-class men who had been unable to make their desired life.

Words in Eosayong are combined centering on the certain formulaic phrase same as the folk-song general. However, the aspect of combination between these formulaic phrases shows the aspect of being combined flexibly according to emotional direction in a traditional narrative singer. The contents of a sigh in Eosayong include criticism against society, alienation, loneliness, and own reality that is faced, but are also sublimed into popular aesthetics of trying to alleviate a sense of sorrow in reality through a smile depending on a case. This aspect indicates the characteristic in the class that had enjoyed Eosayong, and seems to be possible because of a private song that is sung in an individual labor situation. In the base of a sigh is positioned the recognition of reality that oneself needs to make a life as the other existence that is eternally isolated and discriminated in society to which oneself belongs. In a sense that Eosayong contains the lamentable desire of people who have self-consciousness of failing to make own life based on recognition of the ruthless reality, it will be said to be a song that gives

deep echo to modern people who need to get accustomed to live in it with being employed by huge capital in today.

**Key Words** Men's folk song, Eosayong, Sigh, Desire, Women's folk song

논문투고일 : 2008. 9. 30
심사완료일 : 2008. 10. 28
게재확정일 : 2008. 11. 14